



미 증시, 경기 둔화 논란 등으로 혼조세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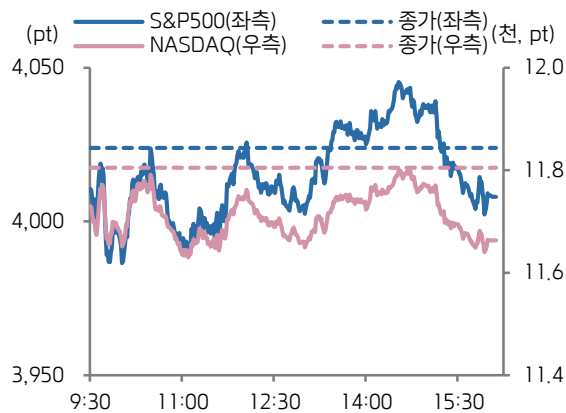
미국 증시 리뷰

16 일 (월) 미국 증시는 투매 현상 진정에도 전거래일 단기 폭등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 출회 속 경기 둔화 논란 등으로 혼조세 마감. 소매판매 등 중국 실물 지표 쇼크, 미국 5 월 뉴욕 제조업 지수(-11.6pt vs. 예상 +17.0pt, 전월 24.6pt) 쇼크 여파로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S&P500 지수는 0.4% 하락 출발. 지표 부진으로 다음날 발표 예정인 미국 4 월 소매판매, 산업생산 등 실물 지표들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짐. 미국 국채 10 년물 금리는 경기 둔화 우려감을 반영하면서 6bp 하락했고(2.88%), 장단기 금리 차이는 5bp 축소됨. 다만 VIX 지수는 연일 하락하면서 극심한 변동성에서는 완화되는 흐름을 보임. 업종별로 차별화 장세를 보인 가운데 대형 기술주, 반도체, 금융주 약세 영향으로 S&P500 은 소폭 하락 마감(다우 +0.08%, S&P500 -0.39%, 나스닥 -1.2%, 러셀 2000 -0.52%).

이날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과 다음날 파월 의장 발언을 앞둔 점도 증시에 부담 요인이었음. 윌리엄스는 최근 채권시장 움직임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고,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 경로를 지지하는 발언을 함. 이날 업종별로 에너지(+2.6%), 헬스케어(+0.7%), 필수소비재(+0.5%) 등은 상승, 경기소비재(-2.1%), IT(-0.9%), 부동산(-0.8%) 등은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1.7%)는 큰 폭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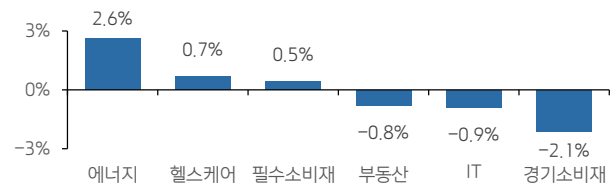
종목별로 테슬라(-5.9%), 아마존(-2.0%), 애플(-1.1%) 등 대형 기술주 중 소비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엑손 모빌(+2.4%), 쉘브론(+3.1%) 등 에너지주들은 유가 급등에 힘입어 급등. 일라이릴리(+2.6%)는 미 FDA 가 신규 2 형 당뇨병 치료제 티르제파타이드를 승인하면서 상승, 트위터(-8.1%)는 머스크의 인수 제안 불확실성 지속으로 주가 급락. 포드(-3.3%)는 리비안(-6.9%) 주식 700 만주를 추가적으로 매각했다는 SEC 공시에 하락. 제트블루(-6.1%)는 스피릿 에어라인(+13.5%)에게 인수 제한을 다시 하면서 급락.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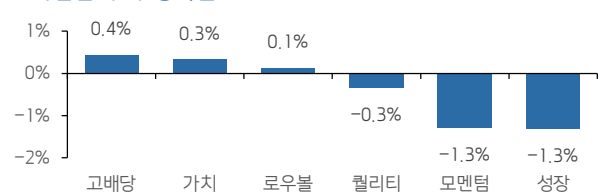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008.01	-0.39%	USD/KRW	1,284.18	+0.03%
NASDAQ	11,662.79	-1.2%	달러 지수	104.23	-0.32%
다우	32,223.42	+0.08%	EUR/USD	1.04	+0.19%
VIX	27.47	-4.85%	USD/CNH	6.80	-0.06%
러셀 2000	1,783.43	-0.52%	USD/JPY	129.09	-0.1%
필라. 반도체	2,920.06	-1.69%	채권시장		
다우 운송	14,334.77	-0.84%	국고채 3년	3.035	+11.3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267	+3.7bp
Eurostoxx50	3,685.34	-0.49%	미국 국채 2년	2.568	-1bp
MSCI 전세계 지수	629.19	+2.26%	미국 국채 10년	2.879	-4bp
MSCI DM 지수	2,701.33	+2.33%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004.52	+1.69%	WTI	114.02	+3.19%
MSCI 한국 ETF	64.74	-1.15%	금	1822.9	+0.8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15%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4%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41%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80.9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과매도 인식 속 일부 기관 수급을 중심으로한 저가매수세 유입 여부 2. 달러화 강세 진정에 따른 장중 원/달러 환율 흐름 및 그에 따른 외국인 매매패턴 변화 3. 미국 전기차주 동반 약세가 국내 관련주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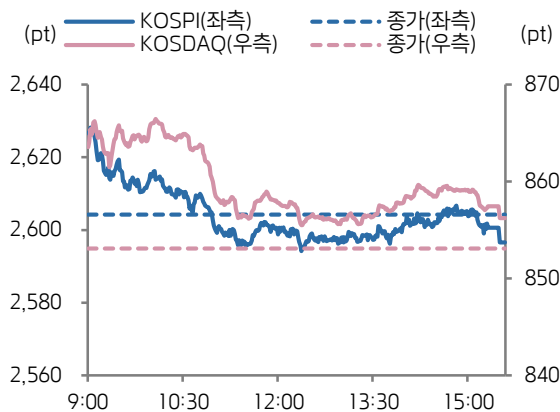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현재 시장 분위기 상으로는 연말까지 미국의 인플레이션 레벨 다운이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 그 가운데 16 일 뉴욕 연은 총재가 신속한 금리인상이 필요하고 내년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 이는 연준이 금리인상을 통해 수요 측면의 물가 압력을 강제로 진정시킬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

버냉키 전 의장이 사후적으로 지적하긴 했지만, 인플레에 대한 연준의 대응도 늦었던 것이 사실인 만큼, 향후 이를 만회하기 위한 연준의 대응 속도는 과거 인상사이클에 비해 빨라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임. 생각해볼 점은 이제는 포워드 가이드(미래에 대한 선제적 지침)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낮아진 상태기 때문에, 이들 역시 후행적인 행동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 물론 상반기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전망 자체는 유효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 시, 당분간 연준이나 시장이나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확인해 나가면서 대응해야 하는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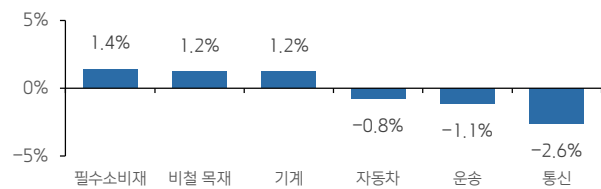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는 인플레이션 불안심리 및 경기 둔화 우려가 상존함에도 과매도권 인식 속 달러화 급등세 진정에 힘입어 반등을 시도할 전망. 전일 발표된 중국의 4 월 소매판매(-11.1%YoY, 예상 -6.2%), 산업생산(-2.9%YoY, 예상 +0.5%) 등 실물경제지표가 봉쇄조치 충격으로 인해 쇼크를 기록했다는 점은 전거래일에 이어 국내 증시 장중에 중국발 경기 냉각 혹은 침체 우려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 다만 상당부분 주가에는 반영되어왔던 측면이 있으며, 6 월부터는 상해지역을 중심으로한 경제 정상화 가능성 확대와 더불어 부양책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내 증시 재료 상으로는 악재가 아닌 중립적인 이슈에 국한될 것이라고 판단.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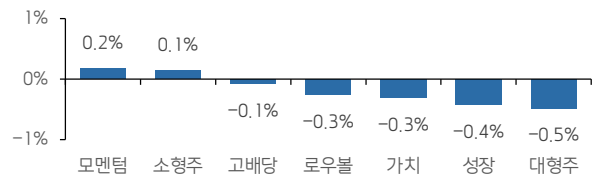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